

엄마를 상실한 중년여성의 애도 경험

최 승 이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Daughters' Mourning Experience from Loss of their Mothers

Choi, Seung Yee

Dept. of Child Welfare,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Over the last 20 years, women's development has been ambiguous. According to Freu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as been considered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women's developmen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 mourning experience from daughters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mothers by death offers any meaningful idea to women's life. For Hermeneutic phenomenology, researchers collected data from three women who have lost their moth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drawing pictures with each of them.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daughters started to fight with their mothers' death from the moment when they were informed. They also experienced a symbolic death until the moment of their mothers' death and even after the confirmation of their mothers' death. Daughters experienced symbolic death, both emotionally and physically as well as familiar experiences with their mothers through the repeated confirmation of death. However, these experiences encouraged daughters to adapt to the reality that was the absence of their mothers through the processes such as "Reflection," "Living in the Center of My life," and "Another Embrace." Through this new perspective, attempts, and relationships, daughters form a new identity and experience 'rebirth'. These daughters' changes were paradoxically strengthened through their resistances towards changes of reformation of themselves.

Key words: loss, mourning, mother-daughter relationship, Hermeneutic phenomenology, identity

I. 서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이라는 여정을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난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누

어 주고 그것이 사랑이나 감사, 보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려져 올 때 우리는 삶이 참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대상관계 심리학자 Fairbairn은 인간은 처음부터 대상을 지향하며,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는 타자들과 접촉하고 그 관계를 유

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Summers 1994). 실제로 한 작은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나 주체적인 존재로 서기까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삶의 진리는 우리가 왜 그토록 대상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아마도 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최초로,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존재일 것이다. 오랜 역사 동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는 잉태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자라게 하는 상징적 존재이다. 그래서 Neumann(1972)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모든 인간의 근원적이고 대지적인 존재요한 개인의 정신이 탄생하는 무의식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타고난 딸은 어머니와 질기고 끊기 어려운 유착된 관계로서 묘사되곤 한다.

Freud는 외디푸스 콤플렉스 개념을 통해 여아는 남근선망으로 남아를 질투하는 존재로 설명했고 프로이트 이후로 많은 학자들 역시 여성의 발달을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여겼다.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나 Kollberg의 연구에서 여아를 배제하고 남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여성의 심리발달이 얼마나 왜곡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남았다. 이에 최근 20여년에 걸쳐 '여성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여성 스스로가 질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왔고 Gilligan은 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로 '모녀관계'를 지적해왔다(Gilligan 1982). 이제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로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여성 정신분석학자 Chodorow(1999)는 프로이트가 설명하지 못한 여성의 발달을 여성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대상이지만 성장과정에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고 점차로 어머니로부터 독립해가는 반면 딸은 어머니가 유일한 애착대상이지만 그 범위를 아버지에게 확대하게 된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남자아이는 엄마와 다른 성을 가졌기 때문에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면서 어머니와의 이른 분리에 대한 추구를 받는다. 어머니와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다보면 여성인 어머니의 성과 다른 남

성성을 획득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여자 어린이는 어머니에게 모성에 때문에 그들 자신을 남자아이보다 덜 분리된 존재로 생각한다"고 했다. Gilligan도 남녀 모두에게 첫 3년간의 주보호자가 대체로 여성이라는 점에서 미루어볼 때, 성적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남아와 여아가 다르며 어머니는 딸을 자신과 비슷하게, 그리고 자신과의 연속선상에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아는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애착관계의 경험을 흡수한다. Neumann(1972) 역시 여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달리 일찍 엄마와 분리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남아가 어머니를 자기와 '다른 그대'로 경험하는 것에 비해 여아는 엄마를 '자기의 것인 그대'인 비타자(非他者)로 경험하는 것이다. 여성은 어머니와의 본원적 관계를 꽤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인 원초적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어머니와의 동일성이 줄곧 존속하는데 그는 이것이 여성에 있어서 자기발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특별한 모녀간의 애착관계는 딸의 발달에도 매우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 딸의 발달단계에 따른 일련의 모녀간의 관계에 대해서 박신규(1992)는 성장기에 있는 딸의 모녀관계를 언급했다. 즉 성장기의 딸의 모녀관계에서는 양육자와 양육 받는 자의 관계가 두드러지는데 이 시기의 딸은 엄마에게 반항성을 보이지만 일상사는 거의 대부분 어머니에게 의존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녀관계는 10대의 개별화 능력을 방해함으로써 딸의 독립에 대한 욕구와 지지받고 싶어 하는 욕구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차이가 났다(Maharaj et al. 2001). 유계숙(1995)에 의하면 청년기의 딸은 독립에 관심을 가지는 주체적 변화를 겪으며 결혼을 통해서도 다중역할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음으로써 또 다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고 했다. 이때 딸들은 어머니와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되면서 동시에 여성의 열등한 위치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결

혼은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와의 장기적 분리를 통해 어머니와의 애착을 높여 준다고 보았다. 한편 조병은 등(1996)은 청소년기 딸에게는 어머니의 자신에 대한 애착경험은 의미가 없었던 반면 중년기 여성과 노년기의 어머니의 관계는 자신의 애착 뿐 아니라 상대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애착도 자신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 간호학과 심리분야에서도 90%이상의 섭식장애 환자가 여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모녀관계에 대한 연구(공성숙·현명선 2002; 노은아·안창일 2005)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들은 어머니의 신체 이미지와 먹는 태도는 딸의 섭식과 신체이미지에 주는 매우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이때 섭식장애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자율성과 친밀감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며 정서적으로 잘 조율되지 못한 결과로 보았다(Francis & Birch 2004). 이렇게 딸들은 모녀관계의 애착을 통해 딸은 그들만의 발달경로를 경험하는데 이러한 관계가 불가항력적인 병이나 재난을 통해 죽음으로 분리될 경우 딸의 애도와 정과 경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Freud는 애도에 대해 정상적인 애도와 비정상적인 애도로 구분하여 정상적인 애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에 개인의 리비도를 철수하고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상실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게 된다. 반면 우울증의 경우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강한 양가감정에 시달리며 이러한 망자와의 관계가 현실세계의 타인과의 관계까지 확산되는데 성인에게 있어서의 사별을 연구한 Bowlby(1988)는 애도를 분리불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불안을 약한 한 개인이 보호자와 헤어져야 하는 분리에 대한 현실적 반응으로 이별로 인한 애도과정은 마비, 그리움과 분노, 혼란과 절망, 재조직의 4단계를 거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대상관계심리학자 Klein은 상실의 경험 뒤에 오는 애도과정은 아이나 성인 모두에게 오는 과정이라고 했다. 사별한 사람에 대한 고통은 사별한 사람의 유아기에 겪었던 실패와 버림받은 상황을 다시금 재경험하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Schafer 1997).

다양한 사별의 대상 중 가족 간의 사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논문의 경우, 약 20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학술지에서도 2000년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가족 간의 사별에 관한 질적인 연구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관계속에서의 사별에 대한 연구로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에 대한 질적 연구(김수지 등 1994; 윤명숙·김가득 2010; 이원희·황애란 2003), 중년 남성의 사별의 현상학적인 경험(박경복·김분한 2004), 중년기 여성이 경험하는 배우자 사별(양복순 2002) 등이 있는데 장성금(2010)과 김신옥(2010)은 미술이나 놀이를 통한 상징적 매개체를 통해 자녀가 어머니를 사별한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성인이 된 딸의 어머니 상실에 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드물며 상실과 사별의 경험을 여성의 정체성 형성과 연관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다. 서영숙(2009)과 홍기령(2001)은 서사민요라는 텍스트를 통해 딸이 경험하는 친정 어머니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서영숙은 시집가지 않은 딸은 동생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시집간 딸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진짜 어머니가 되는 성장통의 과정으로 해석했다. 홍기령은 신화와 문학작품의 해석을 통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딸의 모녀관계를 향한 욕망이 확실한 정체감을 획득한다고 해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죽음은 딸이 홀로서는 독립의 과정으로 보았다. 여성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모녀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딸에게 중요한 정체성 형성의 동인이 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자신을 찾는 여성의 자아와 주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들은 취업, 결혼, 출산, 사회재교육, 이혼의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재인 2005). 서보현(2000)은 자아정체감은 역할수행에서 생긴다고 보는 관점으로 중년기의 중요 과업인 자녀와의 분리-개별화 과정이라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중년여성은 사춘기에 접어

드는 자녀와의 관계의 양상의 변화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중년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던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가족 내의 자녀외의 다른 변인들과 연관된 중년기 어머니 역할 경험 및 적응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 김순남((2009)은 이혼을 통해 여성들이 여성성에 대한 재해석을 동반하게 함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획득하는 기제가 된다고 함으로써 사별은 아니지만 이혼이라는 상실의 경험을 통해 여성이 자아 정체성 형성과정과 밀접하고 연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사별과 여성정체성 형성과정과 연관 지은 연구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별에 대한 논문들 중 많은 수가 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별이 일차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별이 가져오는 과정적 영향, 변화, 회복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적절할 수 있음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볼 때 질적 연구법을 사용한 논문의 상대적 부족현상은 향후 국내의 사별연구 수행에서 고려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이윤주 등 2007). 덧붙여 ‘여성들 자신의 관점에 입각하여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목소리로 어떻게 성인기 삶을 경험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강조했던 길리건의 주장을 기억하며 이 연구가 엄마상실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직접적인 경험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어머니와 동일성을 가진 딸들이 어머니를 사별할 때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외부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내부자적 관점에서 보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연구자의 질문은 ‘딸들이 경험하는 어머니 상실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며 ‘그러한 경험은 딸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어머니 상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머니 상실의 경험은 딸의 정체성에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딸의 어머니 상실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발달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통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으로서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상담현장에서 상담의 주대상이 여성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담현장에서 상담가들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고 회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성인여성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해석학적 현상학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어머니를 상실한 딸들의 풍부한 체험과 현상, 그리고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의 입장을 사용했다. Heidegger는 현상이라는 개념은 스스로를-자기-자신에게서-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했으며 존재가 던져짐으로 일어나는 것을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해석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어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속의 인간됨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도로서의 현상학은 필연적으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현상이 우리를 이끌고 그 현상을 해석함을 통해 당연하고 뻔한 정의에 의해 은폐된 것을 탈은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Richard 1969).

죽음을 통한 엄마와의 분리와 상실의 경험은 딸 개인의 의식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체험이 의미를 지니고 있더라도 단순히 체험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미가 생성되지 않고 현상학적 환원이라는, 즉 우리가 지니고 있던 이론적 틀과 선관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고민하고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체험의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이근호 2007). 그러한 측면에서 딸의 어머니 상실의 체험은 ‘사별’이라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환원론적 과정과 더불어 해석의 과정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딸이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시간상으로 구분하여 기술한 후 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경험을 되돌아보고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한 인터뷰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연구자의 눈으로 해석하여 발견한 의미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2. 연구절차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5월까지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 친분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어머니 상실의 경험 이외에도 가족사와 성장기 기억들이 다루어짐으로 참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연구자가 세 명의 참여자를 만나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와 자료사용에 동의를 구했다. 참여자들과 날짜를 정하여 최소 4회의 인터뷰를 시행했고 장소는 참여자의 집, 근처 카페, 연구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동체실 등이었으며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는 것과 더불어 참여자의 상실에 대한 경험에 대한 그림을 수집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자 노력했다. 면담시간은 평균 50분에서 1시간 20분 정도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 도출되고 보충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추가 인터뷰를 시행했다.

자료 분석의 과정은 먼저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수집된 자료를 여러 번 읽어 각 참여자들의 면담내용이 연구자의 머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 후 각 문단마다 의미들을 적어 그것을 일차적, 이차적 내용들로 나누어 관련 있는 주제별로 범주화했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도 자료에 포함시켰다. 면담 후에 전사한 내용을 참여자들에게 보내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읽어보게 한 후 면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토론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질문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

다. 또한 이 과정들이 일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새로운 주제를 도출하거나 다시 수정하여 더 깊은 의미들을 산출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딸들이 ‘어머니’보다는 ‘엄마’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딸들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도록 연구에서는 ‘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머니 상실을 경험한 세 명의 중년 여성들이다. 선정기준은 자신들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사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어머니 상실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된 중년 여성들이 참여했다. 김혜리와 박소연은 어머니 상실 당시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정미는 당시와 현재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딸의 경험

1) 꼭 사실 거야.

처음에 엄마가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비장한 마음. ‘또 다시 그런 일을 겪을 수 없어. 엄마를 살려야 돼. 그럴 수 있어 라고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략)..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믿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김혜리)

Table 1. Case description

Case	Age	Married	Occupation	Cause of death	Period of fight against disease	Resident
김혜리	45(35)	married (married)	restaurant owner (housekeeper)	cancer	8 months	husband, 3 children
박소연	52(38)	married (married)	cafe owner (cafe owner)	complications	4 years	husband, 2 children
이정미	44(41)	unmarried (unmarried)	counselor (counselor)	brain tumor	1 month	father

*() shows daughter's condition during the separation by mother's death

얼마 못 사신다거나 그런다고는 생각 안했죠. 정말 돌아가실 거라고는...언젠가는 그렇겠지 했지만 생각만 그렇고 피부에는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박소연)

전혀. 돌아가실 거라고는...마지막에 혈압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돌아가신다는 것은 일점일획도 안했어요.(이정미)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은 딸은 엄마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죽음을 부인하고 어떻게든 엄마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기대가 병간호 중에서도 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 ‘좀 더 사실 거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대면하는 시간을 최대한 늦춤으로 죽음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한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늘 이탈하고 싶어 한다. Heidegger는 이러한 죽음으로부터의 이탈은 죽음의 고유성과 필연성이라고 했다(이서규에서 재인용, 2000). 딸들은 모녀간의 애착이 끊어지는 삶의 의외성에 대해 거부하고 엄마의 삶을 그녀들의 소망대로 통제하고자 한다.

2) 오늘은 가지 마세요.

엄마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엄마가 병원에 있다가 정신을 놓으셨어요. 횡설수설했는데 그때 복도에서 엄마를 향해서 굉장히 분노를 퍼부었던 게 생각이 나요.(중략)..지금 보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엄마가 돌아 가시겠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노하게 되면서 떠나보내게 된 것 같아요.(김혜리)

볼 때는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금방은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내 안에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있죠.(박소연)

김혜리와 박소연은 죽음의 현상이 임박했음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를 한다.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회피했던 김혜리는 임박한 죽음의 현상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 그런데 이 분노는 딸

자신이 이해하기에 벽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딸을 뒤흔들기에 이 감정에 대한 정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분노 감정을 표현한 후에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고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더불어 병상을 지키는 것에 따른 극심한 신체적 소진 역시 더 이상 엄마를 자신의 힘으로 붙들 수 없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함으로 엄마를 붙들고 있던 끈을 조금씩 느슨하게 한다.

제가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한숨)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엄마. 제발 오늘 돌아가지 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밤은 버티고 죽으면 안 돼. 나 너무 피곤해.(이정미)

이정미 역시 말할 수 없는 정신적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안이 신체화로 나타나며 실제적으로 병간호로 잠을 자지 못하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어느 사이 딸은 엄마의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3) 엄마. 잘 가요.

밀고 당기기를 하거나 혹은 설마 하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되어 딸과 엄마는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다. 이 순간에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는 딸들의 태도는 각각 달랐다.

엄마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아. 이제 끝났구나. 엄마도 편해질 수 있겠구나.....(중략)... 그냥 담담했던 것 같아요.(김혜리)

일련의 혼돈의 과정을 거쳐 딸은 엄마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딸이 한풀이를 한 후의 죽음은 이제 그녀에게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미치게 끔찍한 일이 아닌, 죽음으로의 이행과정의 모두 끝나는 것이다. 김혜리는 엄마의 병상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미 서서히 엄마를 보내는 애도의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은 그녀가 엄마의 죽음의 순간에 하나의 긴 여정이 끝난 것에 대한 안도와 쉼을 경험한다. 즉 준비된 애도의 과정은 죽음을 더 이상 무차별적이고 이탈성을 지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

일 수 있도록 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내안에 있는 ...돌아볼 수 없는 게 분노로 너무 가득차서 너무 힘들었어요. (중략)..분노라는 정신력 때문에 가만 안 둘 거야. 아. 이런 마음 때문에 살인을 하 는구나.(박소연)

박소연은 죽음의 원인 제공자라고 믿는 타인을 향한 미움이 정작 엄마의 죽음의 순간에도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가니까 전기충격을 하고 있더라구요..(중략)...편하게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중략)..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니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한테 엄마.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진짜 없어? 엄마 없는거 맞아. 이러면서... (눈물).(이정미)

반면 이행과정을 충분히 같이 겪어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엄마가 사망한 이정미의 경우는 순‘엄마 없는 거야?’라며 계속 묻는다. 엄마 없는 세상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그런 곳이다. 김혜리 처럼 일정기간동안 죽음을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이정미는 죽음의 순간 큰 충격을 받고 순간적인 해리현상을 보인다.

4) 나는 여전히 살아서 먹는구나.

병원에서 전쟁터 같았던 시간을 보내고 엄마를 보낸 남은 딸들은 엄마가 아팠던 만큼 똑같이 아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

밥을 차리면서도 엄마는 투병 중에 거의 드시지 못 했는데....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는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아서 먹어야 하는구나. 나는 살아서 먹어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거...(중략)...이제는 잊어야 한다는 거..그런데 그러기엔 아직 미안한 거...(김혜리)

딸은 엄마가 아팠던 만큼 좀 더 아파야 할 것 같고 좀 더 괴로워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자책한

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나쁜 딸이었고 엄마를 잊으려 하는 현재의 자신이 나빠 보이더라도 딸 자신의 삶을 위해 그럴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면에서 죄책감은 엄마에 대한 리비도를 철회함으로써 모녀사이에 연결되었던 단단한 애착이 끊어지는 것을 딸의 측면에서 현실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만나는 감정이다.

돌아가신 후 첫 번째가 되니까 (중략)..우리 아이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큰 아이를 엄마가 굉장이 이뻐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아. 만약에 엄마가 계셨으면 엄마가 오셨을 거고 이거 사 줘라. 저거 줘라. 하면서 사 주셨을 텐데(김혜리)

김혜리는 사별 후, 생일이나 아들의 입학, 가족 행사 등의 특별한 날에 엄마의 부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힘들 거야’라고들 한다. 죽음의 생생함은 엄마를 볼 수 없는 현실을 통해 딸에게 고통스럽게 확인되며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엄마의 죽음은 딸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상실에 대한 깊은 슬픔의 감정은 상실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기에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엄마와 다시 만날 거라는 것이 크죠. 이런 일도 이 유가 있을 것이고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이정미)

이정미는 상실 이후에도 엄마를 미래에는 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이별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데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한다. 그 믿음이 객관적이나 실재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은 그녀들에게 의미가 없다. 종교적 텍스트를 통해 엄마와의 완전한 분리보다는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의 이별로 죽음의 경험을 수용하려 한다. 이 믿음으로 인해 엄마와의 이별은 다음의 만남을 위한 하나의 정거장으로서의 견딜만한 것이 된다.

사별 후 일상으로 돌아간 후 엄마를 이미 담담히 보낸 딸은 일상 속에서 엄마의 부재를 확인하며 엄마가 없는 낯선 공간과 시간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쓴다. 엄마를 아직 보내지 못한 딸은 사별 직전의 심리적 고통이 더한 고통이 되어 딸의 일상을 점유해버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죽음을 수용하게 되는데 이때 죽음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딸들 자신의 실존적 선택으로서의 믿음이 고통을 이기는 지지책이 된다.

2. 엄마 상실의 의미

1) 상징적인 딸의 죽음

(1) 정신적, 신체적 죽음

장례 끝나고 지나는 동안.....엄마가 했던 일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정말 많았고 엄마가 가장으로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가 이런 거였겠구나...(중략)...뒷수습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눈물)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김혜리)

뭐라 표현할 수 없지만 밥 한술 먹을 수 없었고.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중략).. 밥만 먹어도 다 토했고 혈압이 40까지 떨어져서 병원에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중략).. 병이 생기더라고요...(박소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을까...매일같이 선포하듯이. 해내야 돼 버텨야 돼 이리면서 잤던 것 같아요...(중략).. 진짜 맨날 울면서 잤어..그렇게 살았어요...(이정미)

엄마가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 그들 모두 ‘설마’ ‘말도 안돼’ ‘어떻게든 살 거야’ 라며 죽음을 거부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투병생활로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극한 소진상태에 이르면서 딸은 엄마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함께 경험한다. 이것은 엄마의 죽음에 저항하려던 자신의 의지와 힘의 한계를 온 몸으로 대면하게 함으로 엄마의 죽음을 수용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딸은 엄마가 사망한 이후에도

잘 먹지 못 한다던가 신체적 무력감, 두통 등을 호소했다. 딸의 신체는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으나 경험되는 신체는 엄마의 죽음의 연장선속에서 생기를 잃은 죽은 신체이다. 더불어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던 마음의 일부분이 끊어지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극심한 분노, 죄책감, 혼란, 남은 삶에 대한 공포, 두려움, 무기력함 등으로 모든 기능이 퇴행하는 극심한 자아상실의 상태이다.

(2) 익숙하던 것의 죽음

엄마와 같이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엄마가 있던 자리에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가 없다가 이제는 엄마까지도 없고...있어야 할 가족이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김혜리)

엄마는 늘...늘 내편이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달라하면 다 해줬죠.(중략) 그런 엄마가 내편인데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박소연)

절대 나이스하게 지낸 게 아니야. 너무너무 그 안에서 견디는 작업을 했는데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견디는 게 어마어마해요...(이정미)

엄마가 있던 자리에 엄마가 없고 엄마가 늘 딸에게 해 주었던 것이 없어지고 엄마가 해왔던 역할도 사라져서 이제 딸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고 엄마와 함께 했던 일들 또한 이제 혼자 해야 한다. 엄마가 떠나고 난 이후의 시간과 공간은 더 이상 이전의 것이 아니다. 엄마를 상실한 이후에 딸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낯설고 익숙지 않은 생경한 세계이다. 딸에게 익숙했던 세계는 이제 엄마의 죽음과 함께 사라짐으로써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경험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으로 변형된다. 이제 엄마가 존재했던 익숙했던 시공간은 과거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딸의 현실에서 사라진다.

(3) 반복되는 죽음의 확인

엄마가 돌아가시고 6개월 된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구. 엄마한테 기도
한다구...근데 내가 그렇더라구. 어느 날 그게 아니
구나...(이정미)

곧 돌아가실 거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다 아는 것이
있는데 그때 더 잘해드릴 건데 그냥....그걸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거 같애. 참 미련한 거예요.(박소연)

엄마 기일이라던가. 첫 생일이라던가...내 생일이
딱 됐는데 엄마 생일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구
요. 생일이라는의 즐거움보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
고 슬프더라구요...(중략)..아. 엄마가 내 손녀가 입
학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만약에 엄마
가 계셨으면 엄마가 오셨을 거고 이거 사줘라. 저
거 줘라. 하면서 사 주셨을테지라고 생각하면서 마
음이 안 좋았어요.(박혜리)

익숙한 것들의 사라짐은 딸로 하여금 사별 후
에도 일상 속에서 여전히 엄마의 죽음을 확인하
고 수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머리로는 엄
마의 부재를 인정하지만 아직 엄마의 부재를 아
직 마음속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정미
는 그녀의 내담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엄마를 마
음속에서 계속 붙들고 있었고 박소연은 더 이상
잘 헤드릴 수 없는, 엄마가 부재한 현실과 엄마
와 자신에게 부여되었었던 마지막 순간들을 비교
하며 애통해한다.

딸들은 엄마가 부재한 세상에 대해 낯설음을
느낀다. 잠시 엄마의 부재를 잊고 살다가도 엄마
의 역할이 사라진 공간을 새삼 발견할 때 딸들은
엄마를 상실한 직후에 경험했던 감정들, 즉 상실
감, 좌절감, 공허감, 무력감, 슬픔 등의 감정들을
재경험하게 된다. 특히 첫 생일, 첫입학과 같은
특별한 날들은 더욱 강하게 현실 속에서의 엄마
의 부재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이것은 딸의
엄마의 죽음의 수용과 딸의 죽음은 일회적인 사
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죽음의 확인은 엄마와
연결된 어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끊어지게 하는
딸의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이기도 하다.

2) 재탄생

(1) 거리 두고 나를 다시 보기

그런 생각. 엄마의 상황과 내 상황을 대비시켜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되는 게 아닌가 싶어
요. 그때 엄마나 나나 다를 바 없을 거야. 엄마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커지
는 것 같아요...(중략).. 꼭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비취주는 거울이고 엄마를 통해 나
를 보는..아마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다
른 통로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더
강하게 느끼지 않았나..., 아주 .큰 계기가 된 것 같
아요.(김혜리)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애.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같은
부모인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이렇게 틀리는구
나...(중략).. 그래서 이후로 시댁식구와의 평행선이
구나라고 더 느꼈죠.(박소연)

사회통념상 딸들은 결혼을 통해서 모녀간에
첫 번째 분리를 하게 되지만 엄마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한 두 번째 분리는 더욱 강력하다. 엄
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빈 공간은 공허감과
그리움,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나 엄마가 부재하
는 공간은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 당연히
알고 정의되어 왔던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는 새로운 질문과 자각을 일으킨다. 즉 김혜리가
설명한 것처럼 비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
과 엄마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는 새로운
것이 싹트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 박소연
은 결혼 당시에는 시어머니에게 그냥 당연히 떠
느리면 무조건 예하고 살아야 하는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다가 엄마를 잃는 과정, 잃고 난 이후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비교하며 시어머니에 대
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생생하게 인식한다. 결혼
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 속
에서 있던 두 사람 모두 같은 역할 속에서 살아
오고 고민해왔던 여성으로서의 엄마를 이해하며 그
것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자신을 이해하
는 거울로 사용한다.

엄마 친구가 그러셨어요. 내가 엄마 하던 거랑 똑 같이 하고 있더라구요. 엄마가 문 잠그고 둘러보시고 하셨던 행동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고 엄마가 했던 아빠에 대해서 신경 썼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하고 있고..(이정미)

미혼인 이정미는 결혼한 박소연이 시댁과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는 것과 달리 친정에서 엄마의 공간을 직접 몸으로 채우면서 엄마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난다. 즉 죽음이라는 강력한 분리는 딸이 안전하고 좀 더 자유롭게, 경험적으로 자신을 탐색할 있도록 엄마와 딸 사이의 '심리적 공간'을 제공한다. Heidegger는 물음이란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존재로 하여금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했다(Richard 1969).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은 당연하게 여기던 것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된다. 세계에 속한 개별자로서의 딸이 어머니를 상실하는 경험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들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고착된 사고와 시각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즉 엄마의 죽음은 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회의하고 질문하고 재평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엄마와 지냈던 과거의 시간과 경험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전까지 엄마가 딸에게 제공했던 거울을 새삼스레 다시 보고 회의하는 것이다. 그 거울은 엄마의 역할, 여성으로 정체성, 한 개인으로서의 사회와의 소통, 가치 등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한 '다시 봄'은 엄마의 죽음 이후 상당한 시간을 거쳐 딸의 생활세계에서의 경험과 맞물려 진행된다. 그럼으로써 딸들의 '다시 봄'은 딸의 의식만이 아닌 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반성의 공간이 된다. 죽음을 통해 분리된 거리에서 딸의 반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엄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하여 비교하고 해석하게 함으로 자신과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러한 딸의 존재론적 현상은 딸이 앞으로 맞이할 시간과 경험에 투사하여 미래의 지향활동을 예상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2) 내 삶의 중심에서 살아내기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빈자리를 집안에서 다 채워야 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그렇게 엄마 역할을 했던 거...일이 많아졌다는거...음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이정미)

이걸 내가 감당해내고 계속적으로 맞서서 해 나가야 하는 거구나....그런 것 같애.....암튼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내야 하는 것 같애. 딸로서만 살았다면 살림도 해야 되고 보살펴드려야 하고 언니랑 형부랑 같이 살면서 가족끼리 더 어른스럽게(이정미)

예전 공부가 나한테 의미가 없던 건 아닌데 그때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뭘 몰랐던 것 같고 엄마의 경험을 했을 때 이거를 접하고 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한테 다가온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생하고 나의 삶하고 공부의 지식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맞닿았다고 해야 하나. 아귀가 맞았다고 해야 되나.(이정미)

결혼하지 않은 딸 이정미는 엄마의 부재를 딸의 현 세계 속에서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엄마의 역할이 결혼하지 않은 딸에게 그대로 전가됨으로 가사일과 집안 경제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비록 의무적으로 딸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된 '딸'로서가 아닌,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며 세상 속에서 좀 더 주체적인 자신으로서의 선택들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동시에 그러한 수행은 그녀의 '상답사'로서 계속 배워가는 지식들을 머리뿐만이 아닌 삶 전체로 체화되어 상답사로서 더 나은 실천을 돕는 자원이 된다.

엄마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아버지에게 속한 거잖아요. 함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의지나 생각...그때는 속해가는 삶이었는데 나는 속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같이 공유되서 갈 수 있는...(중략).. 엄마와 나는 다르죠. 지금은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죠. 남편이 알아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박소연)

엄마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굉장히 엄했고 그래서 저도 애들한테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 많이 안 안아줬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안 그러려고 의식적으로.. 요즘은 좀 하려고 하는데...(김혜리)

한편, 결혼한 딸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엄마의 자리를 채울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여태까지의 방식과 다른 것들을 스스로 시도한다. 노영주(1996)는 여성이 여성의 ‘어머니 됨’을 여성의 성장과 발달의 계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였으며 50대 중년 여성들이 ‘엄마 됨’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내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로서의 수행, 아내로서의 수행은 여전히 딸들에게 중요한 변화의 터전으로 보이는데 그들의 수행이 가족들과 협력적이고 성공적으로 경험될 때 그들의 ‘엄마 됨’ ‘아내 됨’은 자신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써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엄마 상실의 경험 이후 딸들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엄마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닮은 어느 부분들을 수용해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찾아오기 위한 시도로 드러났다. 즉 그녀들에게 주된 엄마 역할을 통해 생생하게 엄마와 독립되었으나 연장선으로서의 자신을 체험하고 실천한다.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이정미 역시 엄마가 집안에서 했던 일을 도맡아 하면서 동일하게 경험되는 것이었다. Ricoeur(이기언에서 재인용, 2009)는 반성이나 직관만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공허한 ‘가짜 의식(conscience fausse)’이라고 비난하면서 진정한 자기 이해와 자기 삶을 되찾아오는 삶의 표현들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재는 자기를 대변하는 대상을 읽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동반함으로 정립되기 때문이다. 딸들의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는 실천적 의지와 노력은 엄마의 죽음 당시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움의 감정에 압도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엄마의 죽음을 수용한

후 ‘나 다시 보기’의 과정을 거쳐 서서히 올라오는 실존적 행위이며 몸짓이다.

(3) 또 다른 안아줌으로- 엄마와, 타인과 더불어

엄마 묘예요. 갈 때마다 꽃을 가져가서 심어놓는데 늘 시들지 않고 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이구 늘 햇빛이 화사하게 비추면서 편안한 마음이에요. 산소에 가면 따사로운 마음과...엄마산소 아빠, 할아버지 산속 있어도 늘 엄마 산소만 더..뭘랄까..따사로움과 그런 게 생각이 나서..(박소연)

엄마는 좋은 곳에 가서. 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 또 다른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들...그런 것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김혜리)

딸들은 애착을 갈망하는 딸의 욕구와 함께 엄마를 내재화함으로써 엄마와의 연결성을 유지해간다. 내재화된 엄마와의 연결은 딸의 현재 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로 미래까지 투사되어 연결된다. 상실된 대상이 실제로는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남은 자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유지된다고 했던 Klein의 연구를 기억나게 한다(Schafer 1997).

박소연은 어린 시절 엄마와 시장 구경 갔던 과거의 기억과 편안한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엄마의 무덤을 찾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그렸다(그림1). 이정미는 엄마가 더 크고 넓은 존재가 되어 자신과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주고 안아주는 그림을 그렸는데(그림2) 두 사람의 그림은 모두 현재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를 온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김혜리의 경우는 그녀가 10세 때의 모습을 그렸고 엄마 역시 그 당시에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엄마의 이미지를 그렸다(그림3). 두 사람 모두 과거라는 시간 속에 있다. 또한 두 사람의 얼굴이나 팔, 다리가 생략되어 있다. 그녀는 이것에 대해 엄마에 대해 채워지지 않은 욕구와 더불어 그 기대를 포기하지 못한 양가감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크기도 커지고 엄마로서 살아가는 저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커진 것만큼 엄마에 대한 분노나 화남이나 이해할 수 없음이 같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김혜리)

그녀는 인터뷰를 하는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엄마에 대한 현실적 이해와 더불어 분노를 동시에 경험하는 양가감정을 호소했다. 의식적으로는 엄마가 살아생전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해 주었다는 것을 알지만 딸의 마음은 그래도 엄마로부터 받고 싶었던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 Bassin(1993)은 딸들은 엄마에 대한 완벽한 모성을 제공하는 환상속의 엄마를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녀는 아직 엄마의 현실을 뛰어넘어 딸의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엄마에 대한 이상적인 상을 포기되지 못한 듯하다. 그러나 그녀는 인터뷰를 시작하고 마칠 때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전했다.

일하고 나서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잤는데 누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구, 보니까 엄마더라구요. 오면서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 옆에 앉으시더라구요. 너 힘들지, 힘들지, 그러시더라구요. 내가 엄마를 쳐다보니까 앉았던 자리에 와서 내 뒤에 똑같이 눕더라구요. 날 안더니 '힘든거 다 알아.' 그러더라구요. 진짜....너 힘들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았고 엄마가 내가 힘든걸 알고 와 줬구나.(김혜리)

인터뷰를 처음에 두 번 할 때는 그냥 한 거였고... 세 번 째가 할 때는 너무너무 하기 싫더라구요. 때마침 엄마에 대한 분노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참 타 이미징이 절묘하더라구요. 분노를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구요. 인터뷰를 하면 터질 것 같아서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고 나니까 글썽.. 하고 나니까 편안해 지더라구요. 뭔가 막 끊고 있던 것이 잠잠해진 것 같은...분노가 왔던 것이 인터뷰 했던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죠. 뭐랄까. 엄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분노나 원망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고... 그때처럼 올라올 일은 없지 않을까.(김혜리)

김혜리는 엄마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경험했던 극심한 양가감정을 인터뷰를 통해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재구조화하면서 엄격했던 엄마의 상이 따뜻하고 공감하는 엄마의 상으로의 변형을 경험한다. Freud가 꿈은 꿈꾼 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김혜리의 안아주고 위로하는 긍정적인 상은 엄마와의 애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Freud 1940). Kohut은 자녀는 유아기에 엄마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형적 내재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는데 변형적 내재화는 자녀의 심리구조의 발달은 양육자에 대한 이상화가 점진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런 내재화는 전에 대상의 개인적 특질이 결여된 이상화된 대상이 수행하던 심리기능을 때때로 되는 새로운 구조를 창조한다(Summers 1994). 그녀의 양가감정이 엄마에 대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라도, 그리고 엄마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변형적 내재화는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딸에게 내면화된 엄마의 이미지는 엄마가 사별한다고 해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관계와 경험이 함께 맞물려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1)



(그림2)



(그림3)

지금도 엄마 대신에 언니야. 언니가 엄마 대타가 되긴 했어요. 언니한테 많은 걸 의지하고 밀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존재는 변하지 않고 또 있어요. 영원히 그런 사람이 있겠지. 혼자는 못 살 것 같애. 그게 하나님도 되고..가족도 되고...근데 조금은 내용이 달라진 것 같애요.(이정미)

엄마에 대한 힘든 마음이 드는 걸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생하고 제부가 참 큰 힘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같은 여자다보니가 더 공감이 되었던 것 같고....그리고 그나마 그때그때 마음을 넘길 수 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큰 몫을 한 것 같고... (김혜리)

최근에 제가 느낀 건데 엄마를 잃고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고 남편이 나를 덮어주지 않았나.. 그게 컸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산소를 가면 엄마가

없다 그림다기 보다는 평안하다...애아빠랑 가면 그냥 평안하구...(박소연)

엄마와 사별한 딸들은 내재화된 엄마의 상과 애착을 유지하고 변형시켜가는 내적 관계이외에도 외부세계에 남은 타인과의 애착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들은 주로 사별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본 가족들이 주대상자였는데 미혼인 이정미는 친언니와, 김혜리는 친동생과, 박소연은 남편과 더 강한 애착을 형성한다. 애도과정에서 필요한 고인에 대한 추억과 힘들었던 과정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과 좀 더 밀착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Kranz와 Daniluk(2002)은 엄마를 상실한 딸이 나이가 좀 더 든 여성에게 ‘대리엄마 (surrogate mother)’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녀들보다 꼭 나이가 들지 않았더라도 엄마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거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려 했다. 이러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 애착 행위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딸은 엄마로부터 리비도를 서서히 철수시킨다. 철수된 리비도는 남은 삶을 함께 해 나가야 할 다른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투자되어 딸들의 현존재를 지지한다. 이것은 Gilligan과 다른 여성학자들이 여성의 자아를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자아로서, 고립되어 도움을 외치는 자아도 아니고 세계 전체와 융화되어 자기 자리마저 잃어버린 자아도 아닌,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연결된 자아, 인간관계들의 그물 조직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자아라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Gilligan 1982). Jordan(홍기령에서 재인용, 2006)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의 관계지향적인 존재방식은 어머니가 아들에게는 감정이입보다는 지적인 교류를 위주로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 딸에게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감정이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일로부터의 성취보다 엄마 상실의 경험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타인과의 애착을 생성하고 강화함으로써 엄마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려 하는 참여자들의 태도는 관계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여

성들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딸은 내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을 유지하며 그 애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형성해간다. 그리고 내면화된 어머니와의 애착은 딸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애도과정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즉 과거의 모녀관계망, 그리고 현재의 관계망을 연결하는 지속적인 새로운 애착을 추구하는 것이다.

(4) 반복적인 저항과 정체성 확인

내가 분명 바블 때 차려 드세요 했는데도 아버지가 국을 땀히고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우리 아빠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어쩌면 나도 그래.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이정미)

근데 저도 상담을 하고 아이도 상담하면서 아.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하면서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야. 그건 네가 이리이러해서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 버려요.(김혜리)

그러나 사별 이후 딸들이 어머니의 일부분을 자율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걸러내어 자신이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이 일직선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익숙하게 체득되었던 행위와 습관들은 끊임없이 좌절시켰고 그 좌절 속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 시도하고 좌절의 반복이 수반되었다. 김혜리는 좀 더 공감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리이러해야 한다는 이상적인 방식보다 자신에게 좀 더 편하고 익숙한, 즉 어머니가 김혜리에게 했던 엄한 훈육방식을 쉽게 놓지 못한다. 이정미는 어머니와의 사별로 인한 슬픔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했지만 딸이 떠안은 어머니 역할에 익숙해진 다른 가족들이 그녀의 일탈을 불편해했고 기존의 역할을 지속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정작 가족들이 어머니의 부재에 새롭게 적응해가자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이정미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포기한다. 그녀는 결국 변화에 대한 저항은 가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

라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어머니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했던 자신에게 있었음을 자각한다. 결국 딸 자신의 저항을 다시 보고 반성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한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볼까. 난 평생 그리고 살 거야. 맞아맞아 하고 인정하는 거 있죠. 내가 그래요.(박소연)

박소연 역시 어머니 이전의 세대로부터 딸의 세대에까지, 타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침범과 순응이 주체로 살고 싶은 의식의 힘을 무력화시킬 만큼 뿌리 깊음을 느끼고 좌절한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 속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삶에의 욕구였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결국 똑같아지지?’ 라는 그녀들의 자신에 대한 질문과 불안은 궁극적으로는 정체되지 않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기 원하는 욕구의 또 다른 역설적 표현이다. ‘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랬었구나. 근데 이젠 달라. 왜냐하면 나는 나이니까’ ‘아. 나는 정말 엄마 딸이네.’, 혹은 ‘나는 어머니와 다른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거구나’ 라며 스스로를 다시 확인하고 재다짐하는 반복적인 정체성의 확인은 기존의 ‘나’를 벗기 두려워하는 저항을 통해 역설적으로 강화된다. 그리하여 저항은 딸들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분열된 시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체성은 단 한번, 일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이 주는 편안함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감수하는 일련의 시간과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반복적인 저항의 극복은 결국 딸의 새로운 정체성을 반복하여 확인하는 능동적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인 모

녀관계가 급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에 맞이한 중년기 여성의 경험의 의미를 찾고자 질적인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사별한 지 최소 3년이 지난 세 명의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들과의 최소 4회의 심층면접과 그림 그리기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몇 개월 간의 코딩작업을 걸쳐 해석학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어머니의 죽음은 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죽음을 선고받은 순간부터 이미 매우 복잡한 정신적 역동을 경험한다. 죽음을 선고 받고 죽음을 인정하기까지 일련의 저항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 딸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같지는 않지만 정신적, 신체적 소진을 경험한다. 이것은 유착된 모녀관계의 상징적 죽음을 의미하며 어머니와 연결된 딸의 일부분이 함께 죽는 길고 힘든 경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은 딸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지도록 하여 딸의 현실존을 강화시키며 딸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어머니와 연결된 일부분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종말적 사건이 아니라 실존적인 현상이며 존재 가능성의 의미를 지닌다는 Heidegger의 존재론적 사유를 상기시킨다. 새로운 존재 가능성으로 열림은 다음의 과정과 의미들을 생성함으로써 가능했다. 어머니의 죽음을 선고 받은 순간부터 어머니와 함께 진행된 딸의 상징적인 죽음은 정신과 육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어머니와 연결되었던 시공간의 죽음의 차원에서, 그리고 부재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징적 죽음은 딸의 정신과 몸 전체의 차원에서 어머니의 부재를 받아들일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딸은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어머니의 죽음으로 딸의 익숙했던 세계에 이상이 발생함으로써 어머니라는 거울에 대해 재질문함으로써 ‘거리두고 나 다시보기’를 시도한다. 이것은 자신과 어머니에 대해 ‘괄호치기’의 현상학적 태도이며 딸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생성했다. 둘째, 딸은 내재화된 어머니와 재연결되는 데 이때, 살아생전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애착경험을

서술한 여성들은 내면화된 어머니와 더욱 강력한 애착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양가감정을 경험했던 딸은 자신의 ‘어머니 됨’과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경험을 통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어머니상으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신분석학에서 애도를 사별을 통해 애도를 하는 당사자가 성장기에 경험했던 좌절과 분리의 경험이 재경험되는 것이라고 본 것, 그리고 내재화된 애착대상이 애도하는 사람의 또 다른 강력한 애착관계를 통해 새롭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한다. 중년여성의 ‘어머니 됨’은 결혼한 딸, 결혼하지 않은 딸,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었고 그녀들의 생생한 자기체함을 통한 정체성 형성의 요소가 되었다. 이것은 중년여성의 정체성이 아내 됨보다는 어머니 됨을 중심으로 구성된다고 한 조혜자와 방희정(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죽음을 통해서도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모녀간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리적 거리가 성인모녀애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유계숙(1995)의 주장과 일치하며 여성의 관계지향적 존재방식을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들을 지지한다. 그러나 중년여성 정체성이 직업을 가진 여성은 직업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무직여성은 부부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 김연주와 이경혜(2001)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셋째, 어머니 상실은 당연시했던 스스로에 대한 정의, 가족의 신화와 사회의 훈습에 길들여져 있던 화석화된 편견을 벗기고 새로운 자신이 되고자 분투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새로운 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되었다 이것은 직관이나 이해만이 존재하는 ‘가짜 의식’이 아니라 자기표현과 실천을 통한 자기를 되찾는 시도이다. 이로써 연구는 여성이 이혼, 출산, 결혼, 직업 외에도 딸의 근원적 존재인 어머니 상실의 경험 역시 딸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질적인 방법을 통한 사별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는 모녀관계의 양상 중에서 죽음을 통한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

고 여성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 상실의 경험이 딸에게 미치는 과정적인 영향과 변화들을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중년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더욱 다양한 가설들을 생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의 측면에서 중년여성의 정체성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해함으로 성장에 대한 동력들을 재발견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상담현장에서 상담을 받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중년여성으로서 맞이하는 '엄마 상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연구 참여자들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럼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들은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논문의 참여자들의 대상이 중년여성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딸들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 상실의 애도경험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각 딸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적 제반여건, 즉 경제상황, 아버지나 다른 가족의 생존 여부,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는 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통적으로 나타난 어머니 상실의 경험과 의미, 해석에는 딸의 의식수준과 사유의 태도, 딸을 둘러싼 관계와 상황 등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을 통하여 연구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자들의 연령별, 상황적, 그리고 환경적 특성에 따른 애도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딸들의 어머니 상실의 경험을 다양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길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참고문헌

- 공성숙·현명선(2002) 섭식장애 환자의 모녀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1(2), 249-259.
- 김수지·Ida M·신경림·양순옥(1994) 자녀를 상실한 어머니의 고통체험-Parse의 Human Becoming 방법론 적용. 간호과학 6, 5-31.
- 김순남(2009) 성별화된 이혼의 서사-상실의 경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의 의미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5(4), 41-72.
- 김신옥(2010) 여아가 엄마를 사별한 후에 놀이치료를 통한 애도연구. 한국보래놀이치료학회지 6(2), 25-65.
- 김언주·이경혜(2001) 중년여성의 역할적응에 따른 자아정체감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57-176.
- 노은아·안창일(2005) 여아의 섭식장애 위험요인들과 관련된 어머니의 요인들-어머니의 섭식장애 위험요인들과 관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0(2), 127-144.
- 노영주(1996)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어머니됨.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 35-55.
- 박경복·김분한(2004) 중년남성의 배우자 사별경험. 중앙간호학회지 4(2), 143-153.
- 박신규(1992) 딸의 체험을 통해본 모녀관계의 성격과 변화: 30대 전문직 여성 사례연구. 여성학논집 9, 244-245.
- 서보현(2000)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변화 및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2009) 딸-친정식구 관계 서사민요의 특성과 의미 - 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딸의 홀로서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171-206.
- 양복순(2002) 사별한 중년여성에 대한 경험 연구. 질적연구학회지 3(1), 56-64.
- 유계숙(1995) 성인 딸과 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78-85.
- 윤명숙·김가득(2010) 자살자 자녀를 둔 농촌지역 어머니의 경험. 한국가족복지학 29, 115-148.
- 이근호(2007) 질적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교육인류학연구 10(2), 41-64.
- 이기연(2009) 폴 리쾨르: 해석학과 자기 이해. 불어불문학 연구 79, 401-439.
- 이서규(2000) 인간과 실존. 대구: 이문출판사.
- 이원희·황애란(2003) 암으로 자녀와 사별한 어머니의 슬픔단계와 반응. 대한간호 33(6), 847-855.
- 이윤주·조계화·이현진(2007) 사별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분석. 상담학 연구 8(3), 839-857.
- 이재인(2005) 서사유형과 내면세계 : 기혼여성들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서사적 접근. 한국사회학회지 39(3), 77-120.
- 장성금(2010) 가족사별의 상실감 극복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에서 드러난 애도단계. 한국기독교상담

- 담학회지 20, 227-264.
- 조병은·유은희·이정순·최혜경(1996) 3세대 모녀 간의 애착 자율성 발달특성과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91-201.
- 조혜자·방희정(2006) 심포지엄 : 한국 중년여성의 삶과 행복: 중년 여성의 자아 정체성. 한국심리학회 논문집 (2006) 202-203.
- 홍기령(2001) 욕망: 모녀관계와 여성 욕망 정체감 : 크리스테바의 욕망이론-그리스 신화: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 최윤의 ‘굿바이’ : 아름다운 사람과 그녀. 시학과 언어학 2, 89-115.
- 홍기령(2006) 신화적 사유 속의 모녀관계. 아시아여성연구 45(1), 267-294.
- Bassin D(1993) Nostalgic objects of our affection: Mourning, memory, and maternal subjectivity. *Psychoanalytic Psychology* 10(3), 425-439.
-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s-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London: Great Britain by Routledge.
- Chodorow N(1999)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모성의 재생산. 강문예숙, 강문순 옮김(2008)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Francis, LA, Birch LL(2004) Maternal influences on daughter's restrained eating behavior. *Health Psychology* 24(6), 548-554.
- Freud S(1940) *Die Traumdeutung*. Frankfurt: Fischer Verlag. 꿈의 해석(개정판). 김인순 옮김(2003) 서울: 열린 책들.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심리 이론과 여성의 발달. 허란주 옮김(1994). 서울: 철학과 현실사.
- Gold M, Yanof DS(1985) Mothers, daughters, and girlfrien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3), 654-659.
- Kranz K, Daniluk JC(2002) Gone but not forgotten: The meaning and experience of mother-loss for midlife daughters. *Women & Therapy* 25(1), 1-18.
- Maharaj S, Rodin G, Connolly J, Olmsted, M, Daneman D(2001) Eating Problems and the Observed Quality of Mother - Daughter Interactions among girls with type 1 diabetes 9.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950-958.
- Neumann E, Manheim R(1972) *The Great Mother*.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ichard EP(1980) *Hermeneutics: interpretation theory in Schleiermacher, Dilthey, Heidegger, Gadamer*. Chicago: Northwest University Press.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이한우 옮김(1990) 서울: 문예출판사.
- Schafer R(1997) *The Contemporary Kleinians of London*. Bost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Sherry M, Gary R, Jennifer C, Marion M, Denis D (2001) Eating Problems and the Observed Quality of Mother-Daughter Interactions among girls with type 1 diabetes 9.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6), 950-958.
- Summers F(1994)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CA: The Analytic Press.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옮김(2004)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